

월간 주요 이슈

경향신문(2022. 9. 28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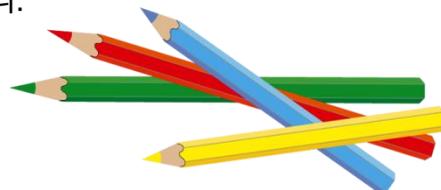
예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생활제품 15만 개 적발

- 가을철 국민생활 밀접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집중 실시 -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(8.22~9.16)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, 캠핑용품,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**를 집중 실시해,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및 폐기·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.

 - *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, 전기 청소기, 전기 주전자, 주방용 전열기구·전동기기, 구강 청결기, 충전식 휴대 전등, 전기 방석·전기요, 운동용 안전모, 학용품, 유모차 등
 - ** 시기·계절별 수요 급증에 따라 불법·불량제품 수입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, 수입통관 시 관세청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공·항만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
- 적발 물품으로 △학용품(약 14만 개)이 가장 많았으며, △휴대용 예초기 부품류(약 2천 개), △운동용 안전모(6백 개)가 그 뒤를 이었다.
- 위반 유형은 △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(약 8만 개), △안전 표시기준 불충족(약 6만 개), △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(약 2천5백 개)의 순으로 나타났다.
-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, 생활용품,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.

 - '16년 대비 '21년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.4%p 감소 하는 등 합동검사의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.
- 양 기관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,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, 향후에는,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·외 리콜 제품,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.



❖ [참고] 가을철 대비 집중검사 결과 안전기준 위반 유형

구 분	품목명	집중검사 부적합 적발				조치 내용
		업체수 (수입)	모델수	건수	수량 (점)	
① KC인증미필	전기 액체 가열기기	2	4	9	26	통관보류
	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	3	2	5	2,278	
	학용품	3	2	4	115	
	전지(충전식 휴대 전등 충전용)	1	1	3	100	
	승차용□운동용 안전모	2	2	2	61	
	유모차	1	1	1	1	
	소 계	12	12	24	2,581	
② 허위표시	전기 청소기(스팀 청소기)	1	1	1	60	통관보류
	학용품	5	5	5	85,246	
	소 계	6	6	6	85,306	
③ 표시위반	승차용□운동용 안전모	5	16	16	557	통관보류
	학용품	4	15	15	62,132	
	전기 청소기	1	5	10	320	
	주방용 전열기구	2	2	2	260	
	유모차	1	1	1	20	
	소 계	13	39	44	63,289	
합 계		31	57	74	151,176	